

주목! 이사람



김영환 광주전남지방 중기청장은 6일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열리는 지역 디자인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허대성 익산지방도관리청장은 6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 취약시설 현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고소득’ 골프장 캐디들 ‘징세’ 여론

평균 2~4천만원 소득...‘세금 징수 당연’ 지적 ‘과세자료 미제출 땐 패널티’ 세법 개정 목소리

국회가 최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통과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세원 확보가 관심인 가운데 한해 수천만원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 한 톨 내지 않는 직종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봉’이 평균 2,000만~4,000만원에 달하는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인) 등 특수직 종사자들은 과세자료 미제출에 따른 제재가 없어 사실상 세금 징수가 어려운 만큼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자, 소포·배달부, 파출부, 수화물운반인, 중고자동차판매인, 육실종사자 등 소득세법에 따라 특수직으로 분류된 종사자들의 과세자료 확보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제113조에 따르면 특수직 종

사자 사업장 등은 과세자료 명세서를 매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세무당국은 이를 토대로 과세한다. 하지만 골프장 등 사업장 등이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어 상당수 사업장 등이 과세자료 명세서를 내지 않고 있다. 세무당국은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실제 과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해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캐디의 경우 정확한 통계를 확인 어렵지

만,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등록된 18홀 이상 골프장은 297곳이다. 9홀 대중제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골프장은 500여곳에 달할 것으로 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추산했다. 18홀 기준, 골프장에 종사하는 캐디는 70~80명 수준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캐디가 3만~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캐디 연봉은 지역마다, 근무 일수마다 다르지만, 광주·전남 기준(캐디 12만원)으로 평균 연봉 2,000만~4,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가량이 달한다는 게 골프장 업계의 입장이다. 종합소득세 10%를 감안하면 한해 100

억원 이상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셈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최근 한해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등 세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해 한다’며 “월 150만원을 받는 식당 종사자들도 세금을 내는 마당에 연봉 4,000만원 가량의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들을 ‘세금 사각지대’로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수직 종사자 중 세원 노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캐디부터 세금을 징수한 뒤 점차 특수직 종사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캠코, 대학생 취업잡 참가자 모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100명에게 취업역량강화 캠프와 취업코칭 컨설팅을 제공하는 ‘캠코 희망 Replay, 대학생 취업잡(Job)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참가 희망자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의 취업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교육기부활동이다. 선발은 다음달 6일이며, 2월 9일부터 11월까지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취업캠프가 진행된다.

캠코에선 최신 취업동향 정보와 함께 직무경험 자가진단, 자소서 작성특강, 유형별 모의면접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후 6개월간 개인별 취업전략에 따른 맞춤형 ‘취업코칭 컨설팅’이 캠코 소재 11개 도시별로 이뤄진다.

캠코 본사 및 지역본부가 위치한 전국 11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전주, 전주, 창원, 강릉)에 소재한 대학교의 3, 4학년 재학생과 휴학생(2017년 기준)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발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우대할 계획이다.

오늘 지역 디자인 간담회 개최 광주전남중기청-디자인센터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영환)은 오는 6일 광주디자인센터(원장 박유복)와 디자인 협력을 통한 수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디자인센터 관계자, 디자인 전문회사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 디자인 지원기관과 지역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수출활성화 방안과 내년에 개최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연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바이어 발굴과 비즈니스 매칭 지원, 디자인 컨설팅 지원 등 디자인센터와 상호 협력하여 중소기업 우수 디자인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한국산업진흥연구원과 공동으로 2016년 하반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지역미래, 기술 경쟁력 갖춘 기업이 열쇠”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

기술 경쟁력 갖춘 기업을 육성해야 지역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밸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형락)는 최근 한국산업진흥연구원(원장 정용기)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에너지 신산업 참여방안’을 주제로 2016년 하반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동반성장 포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와 학계 등 각 계 간 소통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과 지원정책을 도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에너지 신산업 참여방안을 소개하는 문제제기 기초전략연구원 에너지밸리분

원장의 ‘떠오르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 무엇이 좋은가?’란 주제 강연이 열렸다. 또 정용기 포럼 위원장(전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광주시 에너지산업과, 조선대, 중소기업 대표 등 산·학·연·관 토크가 이어졌다. 이날 패널 토크에서 양승학 호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나주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역의 기대는 커졌지만, 아직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교육 참여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 한전의 진정한 사업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은 ㈜부진기연 대표이사는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저렴한 전기료로 인해 자체 전력발전 및 절감노력과 에너지산업 시장규모 자체가 커지지 않

는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대전에 위치한 국내 최고의 전력 R&D기관인 전력연구원의 지역 유치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락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약 10년 만에 다시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납품했던 가전분야 지역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에너지산업도 마찬가지로 지역기업들이 단순히 납품·하청업체로만 남아있기보다는 어떻게 기술경쟁력을 갖춘 실질적인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하느냐가 에너지밸리 조성이 라는 기회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과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애란 기자

스타벅스, 업계 최초 ‘전자영수증’ 도입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는 고객의 친환경 소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업계 최초로 전자영수증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영수증은 스타벅스의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로 매장에서 결제하거나 사이언 오더로 주문한 거래에 대해 자동 발행되며, 스타벅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해당 회원의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 발행되며, 회원들은 앱과 홈페이지 내 설정 기능을 통해 종이 영수증의 수령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자영수증만 발행을

요청한 고객에게는 거래 내역 없이 주문번호만 출력, 제공한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현재 발행되는 영수증은 하루 평균 약 40만건이다. 이번 전자영수증 서비스로 스타벅스는 1년에 A4용지 1,000만여장에 달하는 14만톤의 영수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종이 영수증 분실로 인한 개인 거래 정보 유출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CGI센터 융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광주진흥원, 7~9일 스마트 워크데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정현)은 광주CGI센터를 VR체험, 3D프린팅,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융복합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오는 7일부터 3일간 ‘내일로의 비상, 2016 스마트 워크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창업한 기업들이 한 해 추진한 프로젝트 200여 개의 성과를 한자리에 선보이고, 세미나 등을 통한 정보공유와 교류의 자리도 갖는다. 7일 통합 개회식에는 최재유 미래부 2차관, 장병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스마트창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계획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8일에는 광주글로벌게임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글로벌 게임센터는 이번 개소식에 입주한 기업들의 다양한 VR체험 게임 체험과 중국 일본 등에 선보일 새로운 게임 등

을 공개한다. 또한 입주기업 투어도 마련돼 게임관계자들과 관심 있는 젊은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 기간 창업팀 약 40명이 참여하는 ‘아이디어융합 워크숍’과 지역 콘텐츠기업 채용설명회 등 취업준비생 100여명이 참여하는 ‘지역콘텐츠 Job Con-act’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9일에는 아이디어융합 워크숍에서 우수창업팀을 선정, 시상한다. 선정되면 맥북, 아이패드 등의 상품을 받을 수 있고 맞춤형 멘토단을 꾸려 아이디어가 실행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창업팀간 아이디어를 융합해 플라보브랜딩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정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행사는 ICT와 문화콘텐츠의 산실인 CGI 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자체대 트랜드를 이끌고 갈 공간을 보여주는 자리다”며 “시민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동시에 업체들에게는 새로 개발된 콘텐츠를 소개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애란 기자

전남 문화콘텐츠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모집

디자인·영상·게임 등 문화분야...14일까지 접수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범)은 전남지역 문화산업 분야 특화기업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문화콘텐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신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디자인·영상·게임·애니메이션 및 컴퓨터그래픽(CG) 등 문화산업 분야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모집규모는 기업보육실 5개와 1인보육실 8개로 총 13실이다. 입주면적은 최소 5.6㎡(1인 보육실)부터 최대 37.4㎡(기업 보육실)로 공간별로 상이하며, 임대료는 1㎡당 월 6,070원이다. 월 임대료는 전기요금, 냉난방비 및 인터넷 요금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입주시 월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하며, 보증금은 퇴거시 환불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4일까지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입주기업을 선발한다.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이후 연장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최대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를 원하는 자는 진흥원 홈페이지(www.jci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lyi@jcia.or.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창업지원팀(061-280-7494)로 문의하면 된다. /홍애란 기자



타올나라 (주)영신타올 -전국공급본부- 카탈타올, 자수타올, 스포츠타올, 재직타올 등 100여품목을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브랜드 전문타올매장 백화점 브랜드타올 전국공급처 피에르가르맹, 오마사리프, 마리골레르, 리틀토미, 로베르타, 루이마틴, 베로니카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 [List of agents and contact info]